

1950년대 전전(戰前) 세대의 소설에 나타난 전후(戰後) 인식*

안 미 영(경북대)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연애의 자유'를 위한 반공주의 |
| 1. 문제 제기 | III. 전전(戰前) 세대의 소설에 나타난 '전통 질서' |
| 2. 전전(戰前) 세대 작가의 특수성과 한계 | 1. 유교적 정서와 '유교적 휴머니즘'의 실현 |
| II. 전전(戰前) 세대의 소설에 나타난 '반공 이데올로기' | 2. 신화적 세계 인식과 '구원자' 모색 |
| 1. '월북(越北)인'에 대한 증오와 반공 의식 | IV. 결론 |

I. 서론

1. 문제 제기

1950년대 전전(戰前) 세대의 소설에 나타난 전후(戰後) 인식을 논하기 앞서,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한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37-A00128). 이 논문은 연구기간내에 쓴 4편의 소논문을 참조하여 쓴 것임. 연수 과정 동안 지도교수로서 지도해 주신 송기섭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대 미디어(media)로써 근대소설의 위상에 대해 언급해 보려 한다. 이효덕은 근대교육이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미디어(media)로서의 인간’을 생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 동일한 관점에서, 근대 교육을 착실하게 받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나타낼 수 있었던 근대 문인들은 그들 자체가 이미 근대를 대표하는 미디어(media)였다. 한국문학사에서 근대 작가들은 문사(文士)로서, 그들 자체가 생성한 근대 미디어(media)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근대를 인식하는 인식체인 동시에 매개체였다. 조연현이 『한국현대문학사』를 전개하면서, ‘이광수와 최남선의 문학’을 문학사의 한 장으로 설정한 것처럼,²⁾ 우리 문학사에서 호명되는 염상섭, 이기영, 김동리 등의 근대 문인들은 한 사람의 소설가로서 그 의미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1920-30년대의 ‘근대’를 대표하는 미디어로서 근대문학사의 성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1920년대 혹은 1930년대 등단하여 근대 문학사의 성격을 형성해 나간 문인들이 이후 한국문학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근대문학사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작가들이 한국전쟁 이후에는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 살펴보려 한다. 우선 그들의 작품 중에서 발굴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던 작품을 찾아내고, 논의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둘째,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의 작품은 전후(戰後) 남한의 문학사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나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그들을 총칭 ‘전전(戰前) 세대 작가’로 명명하고, 개별 작가들의 전후(戰後) 소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1950년대 소설사에서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이 차지하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전(戰前) 세대 작가의 특수성과 한계

1) 이효덕·박성관 옮김,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214면.

2) 조연현은 『한국현대문학사』(성문각, 1969)를 총 6장으로 나누고, 특히 3장에서는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을 따로 장을 설정하여 1920년대 한국근대문학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전전(戰前) 세대 작가’의 성격을 소개하기 앞서, 1950년대 활동하던 작가들에 대한 명칭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병익은 1950년대 작가를 전전(戰前)·전중(戰中)·전후(戰後) 세대로 구분한다. 전전(戰前)의 작가로는 김동리·황순원을 소개하고, 전중(戰中)의 작가로는 손창섭을, 전후(戰後)의 작가로는 서기원·하근찬 등을 소개한다.³⁾ 권영민은 전후(戰後)에 활동하던 문인을 ‘기성 문단 작가’와 ‘전후(戰後) 세대 작가’로 구분한다. ‘기성 문단 작가’로는 김동리, 황순원, 안수길, 최정희, 이무영, 박화성, 박영준, 임옥인, 최태웅 등을 들고, ‘전후(戰後) 세대 작가’로는 손소희, 한무숙, 오영수, 손창섭, 유주현(해방 직후등단) 장용학, 박연희, 강신재, 이범선, 김광식, 정한숙, 전광용, 김성한, 선우휘, 박경리, 이호철, 한말숙, 정연희, 오유권, 오상원, 하근찬, 서기원, 최일남, 최상규, 이문희, 박경수 등을 든다.⁴⁾ 송하춘은 1950년대 작가를 네 층위로 세분한다. ①신문학 초기부터 1920-30년대를 거쳐 50년대까지 창작활동을 한 원로, ②1930년대 후반에 등단하여 이전 작가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며 적극적인 의욕을 지닌 작가, ③1940년대 후반에 등단하였으나 6·25로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신인으로 시작하는 젊은 작가, ④휴전 이후 새롭게 발행된 잡지와 신문의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작가로 각각 세분한다.⁵⁾ 이외 김윤식은 ‘6·25 체험’을 기준으로 ‘체험세대’, ‘유년기 체험세대’, ‘미체험세대’로 구분하고 1950년대 이후 한국문학사를 총괄한다.⁶⁾

3) 이외 60년대 최인훈, 70년대 홍성원, 윤홍길, 김원일에 대한 소개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50년대 작가들만을 소개한 것이다. 김병익, 「분단문학의 문학적 전개」, 『문학과 지성』, 1979, 봄호, 84-99면.

4)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945-1990』, 민음사, 1994, 144면.

5) 송하춘, 「1950년대 한국 소설의 형성」,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1994, 13-30면 참조. ①의 범주에는 박종화, 염상섭, 계용목, 박화성, 이무영, 전영택, 이주홍, 주요섭 ②의 범주에는 김동리, 황순원, 안수길, 곽하신, 김광주, 김송, 박영준, 이봉구, 정비석, 최인옥, 최정희 ③의 범주에는 강신재, 박용구, 김성한, 서근배, 손소희, 오영수, 손창섭, 유주현, 윤금숙, 임옥인, 장용학, 한무숙 ④의 범주에는 안동민, 전광용, 최현식, 이병구(조선일보)/ 정연희, 천승세, 성학원(동아일보)/ 오상원, 정한숙, 하근찬(한국일보)/ 이범선, 박경수, 이호철, 선우휘, 박경리, 오유권, 김광식, 서기원 등을 소개하고 있다.

6) 김윤식은 ‘체험세대’의 작품으로 염상섭의 「취우」(1953), 박영준의 「용초도 근해」

전후(戰後)에 활동하던 작가들에 대한 다양한 명명법을 참조하여, 이 글에서는 ‘전전(戰前) 세대 작가’를 6·25체험 세대이면서 해방이전 정확하게 말하자면 1920-30년대에 등단하여 50년대 이후까지 창작활동한 작가들을 명명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후(戰後) 문단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주로 ‘전후 세대 작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⁷⁾ 한국문학사에서는 한국 전쟁을 겪

(1953), 손창섭의 「비오는 날」(1953)를 들고, ‘유년기 체험세대’의 작품으로 김승옥의 「환상수첩」(1962), 윤홍길의 「장마」(1973)를 든다. ‘미체험세대’의 작품으로 선두에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1984)가 있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아버지 세대와 다른 그들만의 절실한 세계가 따로 있음을 시사한다. (김윤식, 「6·25 소설의 원점」, 『우리 소설을 위한 변명』, 고려원, 1991, 282-285면. 「6·25전쟁문학 세대론의 시작」, 『1950년대문학연구』, 예하, 1991, 11-39면 참조.) 이동하도 전후세대를 체험세대(제1세대)-오상원의 「유예」, 유년기체험세대(제2세대)-김원일의 「어둠의 혼」, 미체험세대(제3세대)-임철우의 「꼭두운동회」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 (이동하, 「분단소설의 세단계」, 『분단문학비평』, 청하, 1987.)

- 7) 1950년대 소설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다수의 논의가 ‘전후(戰後) 세대 작가’의 소설에 편중되어 있다. 90년대와 2000년대 박사학위논문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신현, 「한국 전쟁전후기소설의 현실의식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2/한수영, 「1950년대 한국 문예비평론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김택호, 「1950년대 한국리얼리즘 소설연구-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박훈하, 「1950년대 소설담론의 주체형식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김은자, 「1950년대 한국전후소설연구-인물관계와 공간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이대영, 「한국 전후실존주의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8./이국환, 「한국 전후소설의 인물연구」, 동아대학교, 2000./이봉일, 「전후소설과 이데올로기의 상관성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문중호, 「1950년대 한국소설의 주체형상화 방법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배경렬, 「한국전후실존주의소설연구」, 태학사, 2001./최성실, 「1950년대 한국소설비평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이유미, 「1950년대 소설의 서사적 특성 연구-신세대 작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나은진, 「1950년대 소설의 서사적 세 모형 연구-장용학, 손창섭, 김성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최용석, 「전후소설에 나타난 현실비판과 극복의식-김성현과 장용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배팔수, 「1950년대 소설에 나타난 작가의 현실인식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전승주, 「1950년대 한국문학비평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박유희, 「1950년대 소설의 반어적 기법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김장원, 「1950년대 소설의 트로마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서동수, 「1950년대 소설에 나타난

으면서 청춘기를 맞은 전후(戰後) 세대 손창섭, 장용학, 선우회, 이호철 등 소위 신세대 작가들의 작품경향(당대 사회를 거부·비판하고 주로 실존의 문제를 다룸)을 1950년대 소설사의 특징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전(戰前) 세대의 작품을 다룬 논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김영택은 전전(戰前) 세대의 전후(戰後) 작품을 1950년대 문학사에 부각시키고 있다.⁸⁾ 전전(戰前) 세대의 전후(戰後) 작품은 주로 ‘분단의식’이라는 주제아래 분단문학사의 초기 형태로 논의되거나,⁹⁾ ‘중군체험’을 중심으로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의 소설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¹⁰⁾ 이러한 일련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전전(戰前) 세대의 작품은 전후(戰後) 세대의 작품과 비교해 볼 때 1950년대 문학사의 중심에 놓여 있지 못하며, 전전(戰前) 세대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은 김동리, 황순원, 안수길, 이무영, 박화성 등을 중심으로 한 작가론이 주종을 이룬다. 이들을 제외한 최태웅, 김이석, 김말봉, 정비석 등에 관한 논의는 협소하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1950년대 전전(戰前) 세대 작가의 소설을 통해 그들이 전후(戰後)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들이 1950년대 소설사에 남긴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전전(戰前) 세대 작가 김이석(1914-1964), 염상섭(1897-1963), 최독견(1901-1970), 최태웅(1917-1998?), 김말봉(1901-1962), 안수길(1911-

죽음의식 연구』, 건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4./김형규, 「1950년대 한국 전후소설의 서술행위 연구」, 아주대학교, 2004.

8) 김영택, 「전쟁체험의 소설화에 대한 일 고찰-전전세대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어문』23,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1995, 4. 김영택은 1950년대 문학연구의 일환으로 전전세대(구세대)와 전후세대(신세대)를 각각 세분한 후, 전전세대인 염상섭(『취우』)과 김동리(『귀환장정』, 『홍남철수』, 『밀다윈시대』, 『실존무』) 황순원(『인간점목』,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작품을 언급하고 각각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기성 문인 작가의 작품을 1950년대 문학의 일 범주 속에 확인한 바 있다.

9) 유입하의 『분단현실과 서사적 상상력-한국현대소설의 분단인식연구』(태학사, 1998)는 ‘분단인식’이라는 주제 하에 염상섭과 김동리 등을 전후세대 작가들과 동일선상에서 다루고 있다. 이봉일은 『1950년대 분단소설 연구』(월인, 2001)에서 1950년대 분단 소설의 성격을 논하면서 염상섭, 박학송, 황순원 등의 작품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10) 신영덕, 『한국전쟁기 중군작가 연구』, 국학자료원, 1998.

1977), 정비석(1911-1991), 황순원(1915-2000) 등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1950년대 남한의 소설은 월북 작가를 제외하고, 재남(在南) 작가와 월남(越南) 작가로 나눌 수 있으며 월남의 시기에 따라 해방전후와 한국전쟁직후로 구분할 수 있다. 김말봉[부산]과 염상섭[서울]은 재남 작가이며, 정비석은 해방이전부터 남한에 있었고 최태응·안수길·황순원 등은 해방직후 월남한다. 다만, 김이석은 한국전쟁시[1·4후퇴] 월남한다. 이러한 차이는 1950년대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에게 ‘고향의 유무’로 구분된다. 월남(越南) 작가들은 작중에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보여주되, 정서적 공동체로서 고향을 기억한다. 대다수의 작품에서 ‘고향’은 해방이전을 배경으로 한 부락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은 공통된 주제를 통해 동일한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이외 다수의 작가들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모두 다루지 못하고, 임의로 위 작가들의 작품만을 논의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논하기 앞서, 우선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의 특수성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그들은 1910년대를 전후하여 출생했으며 조선의 식민지 체험을 온전히 겪은 세대이다. 전전(戰前) 세대에게 있어서 ‘식민지(1910-1945) 체험’은 ‘한국전쟁(1950-1953) 체험’을 불식시킬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들은 부모세대로부터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2.4-1905.9)’을 추체험했으며 그들 자신은 ‘만주사변(1931)’과 ‘중일전쟁(1937-1945)’, ‘태평양전쟁(1941-1945)’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다. 그들은 식민지 조선과 그 인근에서 벌어지는 국제전을 관망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므로,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의 원체험은 한국전쟁보다 훨씬 앞선 식민지 체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컨대, 안수길은 자신의 체험에 의거하여 『통로』(『현대문학』, 1968.11-1969.11)에서 함경도 함흥지방을 배경으로 과도기 조선의 풍경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영문도 모르고 동학교도가 되는 가족들의 모습, 러일전쟁 당시 함흥에 주둔하던 아라사인들의 실태, 이들을 쫓기 위해 나타난 일병들, 구식 무기와 무기력으로 힘을 잃은 조선 병졸들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다. 조선의 나약한 백성들은 러시아 군대와 일본 군대가 나타날 때 마다 거둬 보따리를 싸야 했고, 두메산골로 피난을 떠나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전전(戰前) 세대가 한국전쟁을 바라

보는 관점은 역사적이고 통시적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전대(前代) 동아시아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본다. 그들에게 ‘한국전쟁’은 불완전했던 전대 역사가 초래한 부산물로서, ‘삶의 장애’는 될 지언정 ‘삶의 방식’을 바꿀 정도의 심각성은 띠고 있지 않다.

둘째, 이 글에서 다루려는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은 1920-30년대를 전후하여 문단에 등단한 세대이다. 그들의 문학적 감수성과 청춘의 센터멘탈은 식민지 근대와 부모 세대의 영향 아래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글쓰기가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는지 시사해 준다. 개인적으로 그들은 식민지 조국에 대한 센터멘탈을 소설 쓰기로 승화시켜 나간 세대이다. 아울러, 그들은 조선 왕조의 백성이던 부모 세대로부터 전대(前代)의 윤리를 체득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소설을 창작하는 그들의 의식 기저에는 ‘전대의 규범과 질서’가 자리잡고 있다. 그들은 배일(排日) 사상은 물론, 전통적인 유교 의식을 소설의 모럴로 삼고 있다. 예컨대 정비석은 「자유부인」(『서울신문』, 1954, 1.7-8.6)에서 ‘직업여성’보다는 ‘가정부인’으로서 여성의 모럴을 강조하고 있다. 최독건은 「애정능선」(『영남일보』, 1956, 4.16-1956, 10.10)에서 개인의 욕망을 초월하여 자식의 미래를 근심하는 ‘전쟁미망인(장한경 마담)의 모성애’와 딸을 사랑하는 ‘실업가(김창구 사장)의 부성애’를 강조하고 있다. 작중에서 근무중이던 청춘 남녀가 창밖 덕수궁에서 들려오는 애국가 소리를 들으며, ‘어버이 날’을 의식하는 장면은 이채를 띤다.¹¹⁾

셋째, 그들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한다. 그들의 작품활동은 1960년대 나아가 80년대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전(戰前) 세대 작가 염상섭, 정비석, 김말봉, 최태웅 등은 1920-30년대에는 각각 개성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문단에 등장하지만, 1950년대 접어들면 특별한 개성을 보이지 않은 채

11) 1955년 8월 30일 국무회의는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고, 보건사회부가 ‘어머니날’ 행사를 주관하였다. 강준만과 이입하는 당시 전쟁 미망인의 타락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어머니의 끊임없는 인내와 희생’을 정당화하려는 공적 기제로서 ‘어머니 날’이 만들어졌다고 소개한다. 이입하, 『계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한국 근현대사 속의 여성 이야기』, 서해문집, 2004, 38-39면. 강준만, 『전쟁미망인의 타락을 막아라』, 『한국현대사산책-1950년대편』2권, 인물과사상사, 2004, 314면.

풍속 소설을 쓴다. 전전(戰前) 세대 작가는 전중(戰中)과 전후(戰後) 시기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신문과 잡지에 대중적인 소재의 연재소설을 쓴다. 김말봉의 경우 3편의 신문연재소설을 한꺼번에 쓰다보니, 동일한 시기에 발표한 소설에는 동일한 모티프와 동일한 캐릭터가 반복적으로 양산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까지 지속된다. 1970-80년대에 이르면, 전전(戰前) 세대 작가는 도시 문명을 비판하는 소설을 쓰기도 하지만, 주로 역사소설과 야담류를 집필하게 된다. 황순원의 「신들의 주사위」(『문학과지성』, 1978.3-1980.6·1981.8-1982.5)가 도시 문명을 비판하는 전전(戰前) 세대의 대표작이라면, 정비석의 『명기열전』(이우출판사, 1977)·『삼국지』(고려원, 1985)는 대표적인 야담류 역사소설이라 할 수 있다.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은 전대에 비해 양적으로 더 많은 작품을 창작하지만, 문단에서 그리 호평을 받지 못했다. 소설에서 ‘신라’로 대변되는 역사적 공간을 재구성한 김동리, ‘북간도’를 문학사에 소환해 낸 안수길 등 전전(戰前) 세대중 소수의 작가만이 전후(戰後) 한국문학사의 새로운 장을 형성할 뿐이다. 기존 문단에 저항하고 서구의 신사조를 수용한 전후(戰後) 세대에게 밀려, 그들의 작품은 전후(戰後)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미디어(media)’로서 각광받지 못했다. 여기에는 당대 문단을 주도하던 평론가들이 주로 전전(戰前) 세대가 아니라¹²⁾ 전후(戰後) 세대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근대문학사를 풍미하던 근대 문인들이 전후(戰後) 한국소설사에서 온건히 자리를 굳히지 못한 원인을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의 전후(戰後) 소설을 분석함으로써, 전전(戰前) 세대의 소설이 노정하고 있는 문체점과 1950년대 소설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개괄적인 접근이지만, 1950년대 소설사의 일면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12) 임화·김남천·한효·안막·윤규섭·김동석·김병규 등 좌파 평론가들이 월북하고, 비평과 창작을 겸하던 정지용·김기림이 부재한 가운데, 전후(戰後) 남한의 비평계는 신세대 비평가들이 등장하는 1955년 무렵까지 백철, 조연현, 곽종원 등 극히 작은 숫자의 평론가들이 대부분의 비평작업을 감당해 나갔다. 한수영, 「1950년대 비평의 좌표와 그 형성조건」, 『한국현대 비평의 이념과 성격』, 국학자료원, 2000, 38면.

II. 전전(戰前) 세대의 소설에 나타난 ‘반공 이데올로기’

1. ‘월북(越北)인’에 대한 증오와 반공의식

김말봉은 전전(戰前) 세대중에서도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표방하는 재남(在南) 작가이다.¹³⁾ 김말봉은 전후 소설에서 공산주의자를 작중 인물로 끌어들이지 않는 대신, 공산주의자와 연고가 있는 인물을 악한(惡漢)으로 형상화한다. 그 결과, 김말봉이 1950년대 소설의 히로인으로 등장시킨 악녀는 월북한 남편을 둔 전쟁 미망인이다. 이 글에서는 여타의 전쟁 미망인과 구분하여, 자신의 타락은 물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미망인을 ‘자유분방한 미망인’이라 명명한다. 작중에서, ‘자유분방한 미망인’은 남북된 남편을 둔 미망인과 구분된다. 예컨대 「새를 보라」(『대구매일』 1954.2.1-6.17)에서 남편이 월북하자, 남쪽에 남아있는 미망인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타락 일로에 접어든다. 마담이 된 초명은 여러 남자와 관계한다. 초명은 자신의 파탄은 물론 그녀와 관계하는 모든 남자들의 삶에 균열을 몰고 온다. 초명은 장대규 사장과 관계하는 동시에, 그의 사위가 될 광연수와도 관계하면서 한 집안의 파탄을 몰고 온다. 장대규는 ‘사위’를 잃고 딸과 아내로부터 ‘신뢰’를 잃으며, 광연수는 ‘악혼녀’를 잃고 나아가 ‘직장’을 잃는다. 작중에서 초명은 악(惡)의 화신이다.

전쟁 미망인 초명의 ‘악(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첫째, ‘월북’한 남편을 두었다. 전후(戰後) 한국사회에서 공산주의는 전쟁의 원흉으로서 분쇄되고 파멸되어야 할 악의 불씨였다. 남편이 자진 월북한 경우의 미망인은 전쟁과 파괴의 주범인 공산주의와의 인접성으로 말미암아, 작중에서 단죄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김말봉을 비롯한 전쟁 유가족의 상처에 의해 더욱 심

13) 이하 김말봉의 전후 소설에 관한 논의는 줄고 「김말봉의 전후(戰後)소설에서 선(善)·악(惡)의 구현 양상과 구원 모티프」(『현대소설연구』, 2004,9, 317-340면)를 참조함. 1950년대 소설에서 반공이데올로기가 수용된 양상을 살핀 초기의 논의로는 김동윤의 「1950년대 소설의 이데올로기 수용양상-구세대의 작품을 중심으로」(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가 있다.

화된다. 김말봉의 이들도 전쟁터에서 죽고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대 ‘연좌제’는 월북한 남편을 둔 ‘미망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2세대의 삶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¹⁴⁾ 김말봉은 월북한 남편을 둔 미망인 초명을 당대 사회에서 ‘범법자’로 몰고간다. 작중 초명은 여러 사람들의 질시 속에 구금된다. 「푸른 날개」(『조선일보』, 1954.3.26-9.13)에도 전쟁 미망인이 등장하지만 「새를 보라」에 등장하는 ‘자유분방한 미망인’과는 상이한 행보를 보인다. 「푸른 날개」에서 마담 윤지순은 남편이 ‘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납치된 경우의 미망인이므로, 악(惡)의 화신은 아니다. 생활난에 봉착한 지순은 박경래 사장의 첩(파트론)이 되어 물질적 조력을 받을 뿐, 「새를 보라」의 초명과 달리 육체를 함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에는 갱생에 성공한다. 그녀의 갱생은 그녀의 의지에서 온 것이라기 보다 이미 예견된 것이다. 부연하자면, 그녀의 갱생 가능성은 이미 남편이 ‘월북’한 것이 아니라 ‘납북’된 것에서부터 여지를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윤지순의 갱생에 도움을 준 인물이 월남한 지식인 청년이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납북된 남편을 대신하여, 월남한 지식인 청년이 부재한 남편의 부덕(不德)을 대신해 준 것이다. 미망인의 행보를 남편의 ‘월북’과 ‘납북’으로 구분하여 바라보는 김말봉의 의식에는 투철한 반공의식이 전제해 있다.

김말봉은 「새를 보라」에서 자유분방한 미망인, 초명을 통해 전후 현실에서 악(惡)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보여준다. 김말봉이 보여주는 ‘악(惡)’은 당대 정치적 입장, 반공 이데올로기를 대변한다. 작중에서 ‘자유분방한 미망인’의 타락은 악(惡)을 대변하며, 악(惡)은 작가의 반공 의식에 의해 단죄받는다. ‘자유분방한 미망인’의 구금과 죽음은 김말봉이 악(惡)을 단죄하는 적극적인 방식이다. 김말봉은 작품의 시작과 중간에서 그 힘을 떨치던 악(惡)을 중국에는 냉엄하게 근절한다. ‘납북’은 용서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일말의 동정을 받을 수 있지만, 자진 ‘월북’은 철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연좌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 김말봉은 1953년 출간한 『별들의 고향』에서도 공산주의에 경도된 유송난을 당시대 악녀

14) 임현영은 이들 2세대들에 의한 연좌제 문제 때문에 “공동부락체의 미쁜 순풍양숙을 파괴시키고 ‘고향이 원수’가 되는 아픔을 남긴다”고 보았다. 임현영, 「6·25와 분단에 따른 실향민」, 『문학과 이데올로기』, 실천문화사, 1988, 201면.

를 묘사한 바 있다. 김말봉은 공산주의에 경도된 유송난을 철저히 불행으로 몰고 간다. 출생에서부터 그녀를 ‘기생의 딸’로 낙인찍는가 하면, 성격파탄자로 만들어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관계하고 미군 접대부로 전락하게 만들며, 중국에는 죽음으로 몰고간다.¹⁵⁾ 작중 유송난의 죽음은 이 땅(남한)에 아예 공산주의자가 발을 부칠 수 없도록 하려는 공산주의 추종자들에 대한 김말봉의 증오심을 시사한다. 김말봉이 은연중에 드러내는 정치적 무의식은 주지하다시피 전후(戰後)의 정치적 지배담론이다.

1950년대 반공이데올로기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분단국가주의로 부상하여 이승만독재체제를 구축·강화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다.¹⁶⁾ 이러한 반공의 시스템 속에서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분단된 후, 남한으로 내려온 이북 사람들에게 ‘반공’은 곧 ‘자유’의 다른 이름이었다.¹⁷⁾ 당시 월남 작가들에게 ‘반공’은 ‘자유’를 보상받기 위한 절대적인 신념이라고 하지만, 이때 ‘자유’는 신념적 차원에서라기보다 ‘생존’의 욕구를 의미한다.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 중 월남 작가인 최태웅, 정비석, 김이석, 황순원 등의 작품에는 반공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들은 한국전쟁이전부터 반공의지를 작품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피력해 왔다. 예컨대, 정비석은 1947년 『장미의 계절』에서 해방 이후 남쪽의 사회풍속을 보여주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부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작중에서 공산주의자 노인수는 같은 회사에 있는 유경채의 애인이다. 노인수는 애정을 미끼로, 회계를 담당하는 유경채에게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도록 유인한다. 그는 회사돈을 횡령하여 모리배가 되고 한 여자를 배반한다. 정비석은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된 청년을 여자 주인공의 반려자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페터

15) 김말봉, 『별들의 고향』, 정음사, 단기4286년(1953) 참조.

16) 유재일, 「한국전쟁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착」, 『역사비평』, 1992, 봄호, 역사비평사, 139-150면 참조. 이승만 정권은 반공이란 미명으로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전시파시스트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일체의 반발을 철저히 봉쇄하였다. 특히 부역자처벌을 통해 반공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7) 강준만·김환표, 『희생양과 죄의식-대한민국 반공의 역사』, 개마고원, 2004, 17면. 이 책에서는 분단 직후 월남인들에게 ‘반공’은 ‘유사(類似)종교’와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한 인물로 묘사한다. 작품의 말미에서 정비석은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된 노인수를 남한 사회에 받을 부치지 못하도록 아예 월북시킨다.

황순원은 『카인의 후예』(1953-1954)에서 공산주의자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북쪽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박훈의 운명을 보여준다. 황순원은 유순한 지식인 청년 박훈이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고향을 등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공산주의자들때문임을, ‘카인’과 ‘아벨’의 이미지로 구현해 낸다. 월남 작가들은 해방이후부터 한국 전쟁기, 전후 한국사회에 이르기까지 반공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한다. 전전(戰前) 세대 작가의 전후(戰後) 소설에는 이미, 남한과 북한이 철저히 배타적인 구도로 분리되어 있다. 작가들은 남쪽 땅 어디에도 공산주의자가 받을 부칠 수 없도록 할 뿐 아니라, 그들과 과거 연고가 있었던 인물마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든다. 전전(戰前) 세대 작가의 전후(戰後) 소설은 분단의 골이 깊이 파여져 있다.

2. ‘연애의 자유를 위한 반공주의

1950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양상을 살펴보면, ‘반공’에 대한 이념이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강령으로만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염상섭은 『驟雨』(『조선일보』, 1952. 7. 18-1953. 2. 20)에서 1950년 6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중산층 도시민을 대상으로 인민군 치하의 서울 풍경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자유분방한 미망인’ 강순제를 둘러싼 삼각 연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적치하 서울에서 작중 남녀 인물들은 두 축의 삼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전반부에는 김학수영감-강순제-신영식의 관계, 후반부에서는 강순제-신영식-정명신의 관계로 단일화 된다. 이 작품은 ‘유엔군’과 ‘인민군’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대신, 인간의 탐욕과 남녀간에 얽힌 애욕이 서사의 골격을 형성한다. 특히 이 작품에서 강순제와 신영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적(인민군)치하 서울의 풍경에는 남한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의 수준을 직시하는 작가의 시선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응, 저게 김일성군야? 저런 한참 자랄 애송이들을 몰아가지구---” 하며 순제는, 이편을 향하여 로오타리 앞에 총을 세우고 맥없이 보초를 섰는 병정을 건너다보며 혀를 찼다. 열 일곱 여덟 즈 된 새까맣게 타고 뺨뺨이 마른 어린애가 허기가 졌는지 줄린 눈으로 멍하니, 툭트면 쓰러질 듯이 이쪽을 바라보고 섰다.

그물(網) 뜨개비를 씌운 모자를 머리에 얹은 것이 눈서투를 뿐이지 예전에 활동 사진에서 본, 보따리에 절무를 매달아서 걸머진 중국 병정과 똑 같았다. 흙투성이가 된 구랄만한 국방색 바지 저고리에 목달이 운동화를 신은 꼴은 총을 가졌으니 군인이랄까? 저런 것들에게 국군이 밀리다니, 순제는 발을 구르고 싶었다.

“이거 어디, 전쟁요! 소꿉장난이지.”

“그나마, 우리는, 서울 시민은 포로가 된 걸!”

두 남녀는 실소를 하였다.¹⁸⁾

인용문은 적치하의 서울 풍경이라기보다, 연애하는 남녀의 산책 풍경에 가깝다. 신영석과 강순제는 ‘얼음에 찬 칼피스’를 마시고, ‘럭키 스트라이크’를 피운다. 작중 ‘서울’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후방과 다르지 않다. 전쟁의 기운 속에 두 남녀의 연애는 더욱 무르익는다. 인민군의 눈을 피해 이쪽 저쪽을 피신하는 그들의 모습은 ‘밀애의 긴박성’과 ‘연애의 재미’를 부가시킨다. 여기에는 북한과 구분하여 ‘남한’이 선택한 이데올로기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염상섭은 전쟁이 발발하였음에도 ‘연애’의 자유가 가능한 곳이 바로 서울이었음을 보여준다. 염상섭은 남한에서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연애’와 같은 감각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직시한다. 염상섭이 간파한 것은 전후(戰後) 남한 체제가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후진성이다. 그 결과 ‘연애의 자유’는 개인의 확장된 사유 지평을 보여주기보다 당대 이데올로기 체현의 도구로 전락한다.

전전(戰前) 세대 작가 정비석의 작품에서 ‘연애의 자유’는 ‘자유’의 원개념으로서, 나아가 반공주의의 기원이 되고 있다. 정비석은 『愛情無限』(1952)에서 ‘연애의 자유’를 위한 ‘반공 이데올로기’의 필연성을 보여준다.¹⁹⁾ 이 작품에서

18) 염상섭, 「취우」, 『염상섭전집』7, 민음사, 1987, 40면.

19) 이하 정비석의 전후 소설에 관한 논의는 줄고, 「정비석의 대중소설에 나타난 ‘윤리’ 고찰」(『개신어문연구』, 2004, 8, 429-458면)을 참조한 것임.

정비석은 작가로 등장한다. 작가 정비석은 피난지 대구의 달성공원 이상화 시비 앞에서 이근호를 만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이근호는 적치하 서울에서 ‘중구선전실’의 일을 맡게 된다. ‘중구선전실’에는 책임자 김철과 선전대원 김선옥·이근호가 함께 일한다.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시작된다. 김철은 얼치기 공산주의자인 반면 이근호는 월남한 자유주의자이다. 이근호는 적치하에서 공산당의 일을 도우며, 우익측에 정보를 제공하는 스파이 역할을 한다. 그가 선전실에서 남몰래 적는 “自由! 自由! 아아 自由가 그리워!”²⁰⁾(135면)라는 글귀는 우익이 ‘자유’를 대변한다기 보다, 좌익이 자유를 압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사회가 압살하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자유로운 연애’를 의미한다.²¹⁾

이근호와 김철은 양자 모두 김선옥을 사랑한다. 그러나, 김선옥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주의자 이근호이다. 이 작품의 표면적인 주제는 남녀간의 애정이지만, 이면적인 주제는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우위를 보여준다. 이때 자유주의의 가치 척도는 ‘연애의 자유’에 있다. 공산주의 진영에서 일하는 아름답고 이지적인 여성 김선옥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를 선택하며, 그들의 자유 연애는 공산주의의 굴레를 벗어난 후에야 실현된다. 김선옥은 이근호에게 다음과 같은 쪽지를 보낸다. “自由가 그렇게 그리우세요? 사람에게는 自由가 生命보다도 貴하다는 것을 저도 요새 와서 깨달았어요. 自由, 自由! 先生님이 自由를 그리워 하시듯이 저도 自由가 그리워요!”(136면) 오빠가 뿌리깊은 공산주의자이고 자신 역시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된 바 있음에도, 김선옥은 이근호를 사랑하고 그가 추종하는 이념을 선택한다.

공산주의 굴레를 박차고 나온 김선옥은 이근호와 더불어 낭만적인 연애와

20) 정비석, 『고원·애정무한·기타』, 민중서관, 1965, 135면. 이하 인용문은 페이지 수만 기입함.

21) ‘자유민주주의=연애의 자유’라는 도식은 실상 최근까지도 대중 서사의 유효한 장치가 되고 있다. 영화 <쉬리>(강제규 감독, 1999)는 남한의 ‘자유로운 연애’에 매료된 남파여간첩의 내면변화를 보여준다. 여주인공의 무장된 이념을 희석시켜 놓을 정도로 강열했던 남한의 ‘자유 연애’는 실상 남한에서 수용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시사해 준다.

동거에 돌입한다. 두 사람은 산속으로 피난가서 꿈같은 시간을 보낸다. 김선옥과 이근호는 피난생활이라기보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산속에 들어가 달콤한 동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정비석은 두 사람의 연애를 “에텐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생활”(185면)로 묘사한다. 이근호와 김선옥이 “개인의 자유”를 압살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를 부정했다면, 공산주의를 등진후 그들의 행적 즉 자유로운 연애와 동거 생활은 그들이 갈망하는 “개인의 자유”가 구체적으로는 ‘연애의 자유’임을 보여준다. 정비석에게 ‘자유’는 ‘남녀간의 자유로운 연애와 결합’을 의미한다. 무릇 ‘자유’는 이념으로서 개인의 의식 성장과 자아 실현 등 폭넓은 사유 지평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유독 이 작품에서 ‘자유’는 남녀간의 ‘연애의 자유’에 국한되어 있다. 즉 자유 연애는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며, 남한의 자유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작중 젊은이들의 ‘반공 의식’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연애의 자유가 없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연애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한 ‘반공의 논리’는 정비석의 1960년대 작품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에텐동산의 길은 아직 멀다』(『조선일보』, 1961. 1. 25~12. 11)에서 옥란과 성준은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에 대항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교제한다. 그들은 혼전(婚前)에 호텔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을 그들이 소속한 사회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라는 데서 찾고 있다. 한성준과 지옥란은 호텔에서 함께 밤을 보낸다. 그들은 공산주의 사회와 대조하여, 그들의 행복을 배가시킨다.

“옥란은 폴랜드의 젊은 작가가 썼다는 <제 8요일>이라는 소설을 읽어본 일이 있어? …(중략)… 그 소설의 주인공은 우리들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년 남녀야.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자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럴 만한 장소가 없어서 무척 애쓰고 있는 심리가 기가 막히게 잘 그려져 있어!”

“정말 자고 싶으면 호텔이라도 가지 않고 왜 안타까와만 했을까요?”

“그건 자유주의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공산국가에서는 감시가 심해서 호텔출입이 아무나 맘대로 안 되거든!…(중략)…”

“서로 사랑하면서 단 둘이 만날 기회가 전혀 없다면,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²²⁾

정비석의 대중 소설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는 ‘연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정비석은 전후(戰後)의 독자들에게 ‘자유’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사유 대신, ‘은밀하고 감각적인 사유’를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정비석의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자유’를 위한 반공주의는 당시대가 강요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후진성을 노출하고 있다. 해방 후 남한 사회에서 ‘반공국가의 구축’과 ‘자유민주주의 실현’은 동일한 개념으로 이식(移植)되었다는 지적처럼,²³⁾ 당대 ‘자유’는 ‘반공’의 구호와 동일한 의미를 발한다. 1950년대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의 육성과 감각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후 1960년대에는 제도적인 담론으로 견고해 진다. 1960년대 투철한 반공교육은 학제를 통해, ‘반공’은 곧 ‘바른생활’·‘도덕’·‘윤리’와 동궤로 인식되었다.²⁴⁾ 정비석은 이러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면서, 당대 독자들에게 정치적 사유가 아닌 감각적 사유로서 ‘자유’를 가공하고 유포했던 것이다.

Ⅲ. 전전(戰前) 세대의 소설에 나타난 ‘전통 질서’

1. 유교적 정서와 ‘유교적 휴머니즘의 실현’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 전쟁(1950. 6. 25~1953. 7. 27)은 실랑민을 양산하

22) 정비석, 『에덴동산의 길은 아직도 멀다』, 회현사, 1978, 279면.

23) 박명림, 「중전과 “1953년 체제”」,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2004, 247면 참조.

24) 박정희 정권은 5·16군사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교육에 큰 공을 들인다. 1961년 10월 문교부는 ‘반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를 제작 배포했고, 1962년 신학기에는 반공에 관한 내용을 대폭 보강해 국민학교 도덕교과서를 개편한다. 이때부터 『바른생활』과 『도덕』 『국민윤리』 등의 교과서를 통해 ‘반공’의 내용은 주로 “북한 공산군의 침략성, 잔인성, 만행, 흉계, 험상궂고 위협적인 모습, 비참한 생활상에 대한 묘사”로 채워졌다. 한지수, 「반공이데올로기와 정치폭력」, 『실천문학』, 1989, 가을호, 119면. 강준만·김환표, 『희생양과 죄의식 대한민국 반공의 역사』, 개마고원, 2004, 150면에서 재인용.

고 가족 이산을 초래하면서 한국현대사는 물론 한국현대문학사에도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을 계기로 실향(失鄉)과 이산(離散)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독자들은 전쟁이전의 세계를 그리워했으며, 그 세계는 전전(戰前) 세대의 전후(戰後) 소설에서 ‘토속적’이며 ‘고유한’ 인정이 묻어나는 휴머니즘의 색채를 띠고 나타났다. 특히 김이석의 소설에는 1950년대 독자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전통적인 정서가 잘 반영되어 있다.²⁵⁾ 김이석 역시 가족을 북한에 두고 단신 남한에 정착한 실향민인 만큼, 그의 소설에는 실향민 특유의 향수(鄉愁)가 짙게 배여 있다. 김이석을 비롯해서 전전(戰前) 세대의 전후(戰後) 소설에서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질서는 ‘유교적 휴머니즘’이다.

유교는 본질적으로 휴머니즘적인 성격을 가지며 인간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교의 휴머니즘은 사회적 질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²⁶⁾ 그 어떤 종교보다도 일상의 관습과 모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교는²⁷⁾ 사람들의 미적 관심을 충족시켜 주는 뿌리 깊은 전통으로서 근대 소설의 인물들을 규정할 뿐 아니라²⁸⁾, 1950년대 소설에서도 여전히 전후(戰後) 피폐한 독자들의 내면을 어루만지는 전통 미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교 전통은 실향(失鄉)과 가족 이산(離散)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흔(戰痕)을 치유하고 복구해 나가는데 있어서 당대 큰 활력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
- 25) 이하 김이석의 전후 소설에 대한 논의는 줄고 「전전(戰前) 세대의 소설에 나타난 유교적 휴머니즘 일고(一考)」, 『한국언어문학』, 2003, 12, 539-560면.)의 내용을 참조함.
- 26) 줄리아 칭/임찬순·최효선, 『유교와 기독교』, 서광사, 1993, 34면. 우리의 전통 사상은 유교와 불교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불교가 자비·인연의 사상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면서 종교의 영역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면 유교는 정치·이념·생활 윤리로 정착되어 주로 교육·학술의 영역에 자리를 잡아 나갔다.(최근덕, 「儒敎와 佛敎에 있어서의 理想的人格」, 『불교연구』15, 1998, 28면.) 동일한 차원에서 후대에 들어온 기독교가 신중심의 초자연적·초월적 법칙에 의거해 있는 반면, 유교는 인간중심의 학문적·자연법적 기준에 의거하고 있다.(원기성, 「儒敎人間論과 基督敎人間論의 比較 研究」, 『한국행정사학』, 1995, 23-36면.)
- 27) 카지노부유끼는 유교의 성격을 ‘禮敎性(윤리)’과 ‘宗敎性’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때 藝敎性은 일상의 관습과 모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加地伸行·김태준 역, 『유교란 무엇인가』, 지영사, 1996, 51-58면 참조.
- 28) 송기섭, 「근대소설과 유교적 인간」, 『국어국문학』127, 2000, 359면.

있다. 전후(戰後) 문학에서 실존주의가 전후(戰後) 신세대 작가들의 작품경향이 라면, 유교적 휴머니즘은 근대부터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해 온 전전(戰前) 세 대 작가들의 전통적인 작품 경향이다.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은 그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서구 사상 대신, 종래의 유교적 인간상을 형상화하면서 피폐한 현실을 재건하고 복구해 나가는데 힘쓴다. 소설에 구현된 유교적 인간은 고향과 가족을 잃은 1950년대 독자들의 애환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들에게 위무의 기능은 물론 재활의 가능성을 심어주며 전후(前後) 소설의 전형적인 인물로 자리 잡는다. 김이석 소설에 나타나는 ‘유교적 휴머니즘’은 이러한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의 작품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²⁹⁾ 김이석은 1950년대 전후(戰後) 소설에서 현실의 고난을 감내 해 내는 ‘선량한 인물’을 통해 유교적 휴머니즘의 본질을 보여준다. 작중에서 ‘선량한 인물’은 인간의 도덕적 자각과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유학사상의 개인 윤리, ‘충서(忠恕)’를 실현한다. ‘충서(忠恕)’의 의미는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한 공자의 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나’와 ‘남’이 모두 같은 마음의 바탕을 지닌 존재임을 확인함으로써 이기심을 극복하고 일치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주희의 해석에 따르면 ‘충(忠)’은 자신을 다 발휘하는 것이요, ‘서(恕)’는 자신을 미루어 남에게 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忠)’이 내면의 진실성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서(恕)’는 ‘충(忠)’을 밖으로 구현하여 다른 사람과 일치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⁰⁾

김이석 소설에서 ‘선량한 인물’은 충(忠)과 서(恕)를 실현하면서 현실의 고난 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간다. 「학춤」(『신태양』, 1956)에서 성구 영 감은 양로원에 몸져 누워있지만 학춤의 진수를 보여주고 죽는다. 성구 영감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다함(盡己之心)으로 서 ‘충(忠)’을 실행한다. 아울러 「빼꾸기」(『문학예술』, 1957. 5)에서 나는 일자

29) 최태웅 소설에 나타나는 ‘순박하고 의지적인 인물’ 역시 유교적 휴머니즘을 실현하 고 있다. (줄고, 「최태웅 소설에 나타난 전후(戰後) 인식-전후(戰後) 미발굴 장편소 설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2003. 8. 117-136면.)

30) 금장태, 『유학의 사상과 의례』, 예문서원, 2000, 56면.

리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가진 돈을 다 잃지만 그 돈을 갚지 않는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통해 청명한 자연(빠꾸기)의 소리를 듣는다. 나는 내 마음을 살피 남의 마음을 헤아림(推己及物)으로서 ‘서(恕)’를 실현한다. 충(忠)을 실현한 성구영감에 비해, 서(恕)를 실현하는 나는 한층 고양된 인격을 보여준다. 작중 ‘선량한 인물’은 자기 내면의 진실을 충실히 실행함(盡己之心)은 물론, 자기 마음을 살피 남의 마음까지 헤아린다(推己及物). 그들은 제 각각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충(忠)’과 ‘서(恕)’를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선량(善良)을 이웃을 비롯한 현실에 구체적으로 확산시킨다.

충(忠)과 서(恕)를 실현하는 ‘선량한 인물’은 비단, 김이석 소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1950년대 전전(戰前) 세대 작가의 다른 작품에서도 등장한다. 예컨대, 황순원의 「학」(『문예』, 1953. 2)에서 성삼이가 덕재에게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상대에 대해 관대해 질 수 있는 것도 그들 특유의 선량함 때문이다. 서울수복(1950. 9. 28)이후로 추정되는 1950년 가을, 국군 성삼이가 인민군부위원장인 덕재를 포승줄에 묶어 압송한다. 성삼이는 기력이 없는 노부모를 봉양하려는 자신(아들)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피난가지 않았다. 이때 성삼이의 충(忠)은 아들의 신분(아들)에 충실한 것이라는 점에서 ‘효(孝)’와 동궤에 놓인다. 전쟁직후 인민군이 마을에 들어닥쳤을 때, 부모와 처자를 두고 떠나야 했던 성삼이는 덕재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릴 수 있었다. 포승줄을 풀어주는 성삼이와 그러한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덕재는 양자 모두 동일한 ‘서(恕)’의 정서를 공유하는 유교적 인간이다. 작중 성삼이와 덕재는 이념의 대립에 앞서 그들이 전통적인 정서를 공유하고 실행해 옮기는 ‘선량한 인물’, 한 민족임을 보여준다.

전후(戰後) 세대 작가들이 실존주의의 세례를 받고 현실을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한 반면, 1920~1930년대 등단한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은 종래의 유교적 휴머니즘으로 피폐한 현실을 복구하고 재건하는데 앞장선다. 1950년대 전후(戰後) 문학에는 전후(戰後) 세대 작가들의 실존주의 사상에 앞서,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의 유교적 휴머니즘이 바탕에 있다. 전전(戰前) 세대 소설에 나타난 ‘선량한 인물’은 동시대 전재민(戰災民)들에게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긍정적인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안을 주었다. 1950년대 실향민과 이산가족들은 유교적

전통의 과거를 그리워했으며, 사회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도 유교적 통합력은 당대에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힘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신화적 세계 인식과 '구원자' 모색

전후(戰後)의 전재민(戰災民)들에게, 김이석이 전통적인 유교 정서를 통해 주어진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여유와 위안을 주었다면 황순원은 신화적 세계의 신화적 인물을 통해 전후(戰後) 현실을 재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구원 의지를 일깨운다.³¹⁾ 『카인의 後裔』(『문예』, 1953. 9~1954. 3)에서, 황순원은 기독교 창세 신화에 등장하는 '카인 모티프'를 원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창조한다. 작중에서 '카인'은³²⁾ 선량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마을 공동체의 혼란을 야기한 반면, 아벨은 선량한 피해자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 작품에서 '아벨'은 모성에 집착하는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치지만, 이후 장편 소설에서 '아벨'에 해당하는 작중 주인공은 자신의 상흔에 매몰되지 않는 성숙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人間接木』(1955)에서 '아벨'은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치유적 인물'로 등장한다. 상이군인 최종호는 자신의 상처에

31) 이하 황순원의 전후소설에 대한 논의는 줄고, 『황순원의 전후(戰後) 장편소설에 나타난 '아벨'의 초상화』(『민족문화론총』, 2004.12. 363~388면)를 참조함.

32) 기존의 연구자들은 '카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한다. 김병익은 '카인'을 '아벨'과 더불어 동족상잔의 비극을 보여주는 포괄적인 알레고리로 파악한다.(김병익, 『수난기의 결벽주의자』, 『황순원문학전집』5, 삼중당, 1978, 371면.) 유임하는 '카인과 아벨'의 모티프가 특정 인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갈등에서 비롯된 가해와 희생의 반복적 연쇄를 의미한다고 본다.(유임하, 『설화적 세계와의訣別儀式』, 『한국문학연구』1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5.3, 255면.) 장현숙은 '카인'을 "농민의 후예", "조상 대대로 땅 파 먹고 사는 농민들"로 규정한다.(장현숙, 『황순원문학연구』, 시와시학사, 1995, 187면.) 김인환은 '카인'을 '국외자로서, 사회적 금기를 넘어선 사람으로 오작녀를 지목한다.(김인환, 『인고의 미학』, 『황순원전집』5, 문학과학지성사, 1990, 364면.) 이 글에서는 '카인'을 '생존욕에 눈멀어 인간과 인간간의 신뢰를 파괴한 존재'로 본다. 작중에서 이를 실행에 옮긴 인물은 '농민의 후예' 도섭영감이다.

함몰되지 않고 타인의 상처(영혼)를 치유해 나간다. 황순원은 자기구제마저 힘든 전후(戰後)의 현실에서, 타인의 구원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상이군인을 형상화하고 있다. 『人間接木』에서 황순원은 ‘상이군인’과 ‘고아’를 접붙이는데 성공한다. 상이군인 최종호는 갱생 소년원 고아들의 ‘갱생’을 통해 자신의 ‘갱생’에 성공한다. 그는 불구자가 아니라 치유자가 되어, ‘거리의 아이’를 ‘천사’로 치유한다. 동시대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 상이군인이 불완전하고 불안한 존재로 나타나는데 비해, 『人間接木』의 상이군인은 피폐한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적극적인 인물로서 타자의 영혼을 구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이군인 최종호는 상처받은 영혼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는 현실적인 ‘구원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황순원이 형상화한 ‘구원자’·‘치유자’로서 상이군인의 의의를 알기 위해 동시대 다른 작가의 전후 장편에 등장하는 ‘상이군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김말봉의 『새를 보라』(『대구매일』, 1954. 2. 1~6. 17)에는 상이군인 광연수가 등장한다. 그는 자활적으로 갱생의 길을 도모하기보다 애정기근에 빠져, 방황하고 방탕으로 떨어진다. 작중 ‘상이군인’은 ‘자신의 상처에 함몰’되어 있다. 전후의 상이군인은 자기를 구제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예를 최태응의 『행복은 슬픔인가』(『영남일보』, 1954. 10. 24~1955. 2. 24)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대장 출신의 정민식은 한 쪽 눈을 실명했으며, 나머지 눈마저 실명위기에 있다. 화가인 그에게 실명은 치명적이다. 제대한 그는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미망인과 불량배 틈에서 곤욕을 치른다. 이후, 그는 환도한 서울에서 재활에 성공한다. 그는 화가로서 개인전을 열고, 헤어진 연인과 재회한다. 이 작품에서 제대한 상이군인은 ‘자기 자신의 재활’에 성공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다양한 조력자(전우 김중사·친구 명관·권노인 등)의 도움 때문이다. 김말봉과 최태응의 작품은 전후(戰後) 사회에서 상이군인이 외부의 조력없이 자활하는 일이 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정비석은 『人間失格』(정음사, 1962)에서 상이군인의 비극적 말로를 보여준다. 『人間失格』에서 남자 주인공은 성불구자가 되어 제대한 다. 아내와 남편은 시일이 흐를수록 관계가 소원해 진다. 아내는 학창시절의 첫사랑을 만나자 남편

을 떠나고, 아이들은 친척집과 고아원으로 내몰린다. 상이군인은 행려병자가 되어 죽는다. 정비석은 이 작품에서 상이군인의 ‘불구’는 자신 뿐 아니라, 한 가정(사회)의 불행과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세 작품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이군인이 전후 현실에 적응하는 일은 무척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제하는 일조차 불가능했으며, 다양한 조력자들의 도움이 뒷따라야만 자활이 가능했다. 이처럼, 동시대 다른 작가들(김말봉·최태응·정비석)의 작품에서 ‘상이군인’이 자활이 어려운 존재·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데 비해, 황순원은 상처투성이 ‘고아들’의 내면을 치유하면서 자기 역시 치유받는 적극적인 ‘구원자’로서 상이군인을 부각시키고 있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1960)에서는 ‘학도병’이 ‘구원자’의 이미지를 구현해 낸다. 그들은 황포한 전쟁에 대해 복수하기보다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서 대속(代贖)한다. 1부는 1953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전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2부는 1957년을 배경으로 서울의 일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부는 순결한 청년이 전장터에서 자신의 ‘순수’가 오히려 결백증이 되어 자살하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고, 2부는 제대병이 전후(戰後) 현실에서 자신의 과오에 대한 참회로 말미암아 자멸(자기정역)하고 마는 모습을 보여준다. 양자 모두 결백증의 형태로 자기를 확대하고 스스로 피흘린다. 이때, 그들의 피는 ‘복수(증오)의 피’가 아니라, ‘참회의 피’이자 ‘정화의 피’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들은 자기 속죄(贖罪), 더 나아가 대속(代贖)의 ‘성스러운 피’를 흘린다.

제 1부에서는 동호가 ‘아벨의 이미지’를 구현해 내고 있다. 전장터에서 동호는 ‘살인행위’와 ‘매음행위’에 대해 경악한다. 동호는 인명(적군) 살상을 혐오하고, 애인의 순결을 존중하는 순결한 영혼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 전장터에서 그 역시 적군을 살상한다. 나아가 현대 등에 이끌려 매음한다. 작중에서 시종일관 ‘유리’로 표상되던 동호의 ‘순수’는 여지없이 깨어진다. 순수에서 너무 멀리 나아간 동호는 술병의 ‘유리’로 동맥을 끊어 자멸한다. ‘동호의 죽음’은 ‘복수(증오)의 피’가 아니라 ‘참회의 피’·‘정화의 피’라는 점에서 ‘제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는 자신의 피를 통해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에 종지부를 찍는다. 그것은 ‘카인’의 죄악을 대신하는 ‘아벨’의 대속(代贖) 행위이다. 이러한 희생제도가 전쟁직후, 최전선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그것은 ‘동호의 죽음’이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열강의 대립에 의해 희생된 이 땅의 순결한 영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³³⁾

1부에서 동호가 육신을 가해함으로써 정화(淨化)의 속죄양이 되었다면, 2부에서 현재는 정신을 가해함으로써 정화(淨化)의 속죄양이 된다. 현재는 ‘꿈의 잠’을 비롯하여 가사(假死) 죽음의 상태에 있다. 전후(戰後) 사회에서 그는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어 자학하고 조롱하며, 광기를 보인다. 제대후, 그는 자신이 죽인 무고한 주민과 대면하고 삶의 균형을 잃는다. 석기·윤구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시내 한 복판에서 다른 여자의 꿈무니를 쫓아다니며, 기생 계항의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 심지어 동호의 애인 숙을 겁탈하기까지 한다. 현재는 현실을 도피하는 대신, 현실의 밑바닥(수렁)까지 내려간다. 어머니가 미국행을 권고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는다. 그는 전쟁이 만들어 놓은 혼란에서 도피하기보다 오히려 맞대결하려 한다. 그는 흉포한 전쟁을 대신하여 대속(代贖)한다. 현재는 계항에게 단도를 주면서 그녀의 자살을 방조한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도받고, 제법 긴 ‘꿈의 잠’을 잔다. 이 정화(淨化)의 공간에 현재 대신, 계항이 피를 흘린다. 황순원은 전후(戰後) 소설에서 피폐한 현실을 치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구원자를 모색하고 있다. 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타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 스스로 희생(속죄)하고 자신을 단죄함으로써 이 땅에 도래되어야 할 평화를 각인시킨다. 황순원은 전후(戰後) 소설에서 현실을 재건하고 체제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당대 현실적인 ‘구원자’를 모색한 것이다.

33) “전방초소를 가르는 비무장지대(DMZ)는 세계 최고의 무장지대, 즉 MMZ (Most-Militarized Zone)”가 되고 “냉전시대 내내 이 지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최근접(最近接) 무장지대 지역”이라는 박명림의 견해에 따르면, (『중전과 “1953년 체제”』,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2004, 241면.) 한국의 남북을 자르는 ‘최전방’은 그 자체로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열강의 희생제단임을 알 수 있다. 그 희생제단에 이땅의 순결한 영혼의 피가 바쳐진 것이다.

IV. 결 론

근대 교육을 착실하게 받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나타낼 수 있었던 근대 문인들은 그들 자체가 근대를 대표하는 미디어(media)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근대문학사의 성격을 형성하면서, 근대 독자들을 견인했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 문인들이 1950년대에 이르면 문학사의 중심축을 이루지 못한다. 1950년대 전전(戰前) 세대 작가(소설가)의 전후(戰後) 소설은 전대(1920-30년대)에 비해 오히려 양적으로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1950년대 소설사에서 그리 빛을 보지 못한다. 그 이유는 크게 문단의 구도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1950년대 대거 등장한 ‘전후(戰後) 세대 작가’의 활발한 활동 둘째, 등단할 무렵 그들의 작품을 문단에 호명해 주던 평론가들의 부재, 셋째 이후 등장한 신세대 평론가들과의 정서적 간격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피상적 관찰외,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전전(戰前) 세대 작가의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최독건, 안수길, 김말봉, 정비석, 염상섭, 최태웅, 황순원 등의 작가를 중심으로 발굴되지 않은 신문 연재본과 논의되지 않았던 단행본 등을 참고로 하여 전전(戰前) 세대의 1950년대 소설에 접근한 것이다.

1950년대 소설에 나타난 전전(戰前) 세대의 전후 인식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당 시대 집권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허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전통 질서를 구현하면서 전후(戰後)의 안녕과 재건에 앞장선다. 우선, 전전(戰前) 세대의 작품이 지닌 한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그들은 전후(戰後) 소설에서 적극적으로 반공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김말봉은 『새를 보라』(1954) 소설에서 ‘월북(越北)인’에 대한 증오를 유족들에게까지 보이고 있다. 김말봉의 소설에서, ‘월북한 남편을 둔 자유분방한 미망인’은 당 시대를 대표하는 악녀이다. 이의 월남한 전전(戰前) 세대 작가의 다른 소설에도 ‘공산주의자’에 대한 증오심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의 과오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유포한 데에만 있지 않다. 그들은 당대 독자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성찰을 차단시킨다. 정비석의 『애정무한』(1952)·『에덴 동산의 길은 아직도 멀다』(1961)에서 주인공들은 연애의 자

유'를 위해 '반공주의'를 고수한다. 정비석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의 이념을 본능적이고 감각적 차원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독자들에게 정치적인 사유의 깊이를 찾아간다.

반면,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은 전후(戰後) 소설에서 전통 질서의 구현을 통해 당대 모럴을 제시한다. 그들은 전후(戰後) 혼란한 사회에 '전통 질서'를 구현해 내고, 전후(戰後) 현실의 안녕에 기여한다. 이산(離散)과 실향(失鄉)의 상흔(傷痕)으로 가득 찬 당대 독자들에게, 유교적인 정서를 비롯하여 전통적인 세계 질서를 보여줌으로써 작가는 정서적 안정, 크게는 사회적 질서를 도모한다. 김이석의 단편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량한 인물'은 '충(忠)'과 '서(恕)'를 실현하면서 유교적 질서를 사회 규범으로 확산시킨다. 황순원은 『카인의 후예』(1953)에서 기독교 창세 신화 모티프를 작중 인물의 성격 형상화에 차용한다. 황순원은 이후 작품에서도 '신화적 세계'의 질서를 작중 인물의 성격에 부여한다. 황순원은 전후(戰後) 소설에서 '아벨 이미지'를 통해 전후의 피폐한 현실을 치유하는 적극적인 구원자를 모색한다. 『인간점목』(1955)에서 상이군인은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자기 역시 구원에 이르며, 『나무들 비탈에 서다』(1960)에서 청춘들(학도)은 흉포한 전쟁을 대신하여 스스로를 단죄한다. 특히, 최전방 초소를 무대로 죽은 '순결한 영혼'은 민족의 차원이 아니라, '세계 열강의 대립과 갈등'의 희생물로서 1950년대 이 땅의 순결한 청년이 잃어져야 했던 십자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면,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의 공과(功過)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들은 당면한 '현실(체제)'에 대해 비판은 물론,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현실'을 전폭적으로 수긍했으며, 그 범위 안에서 안녕을 도모하기에 전념했던 것이다. '문학과 현실'간의 관계에서, 문학이 '문학사'라는 의미망을 형성할 수 있는 까닭은 '문학'이 '현실'을 직시할뿐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가 '현실'을 보되 '현실' 너머의 것을 보여줄 때, 그 작품은 문학사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이와 달리,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은 '현실 추수(追隨)적인 작품'을 대거 양산해 낸다. 그 결과 그들은 당대 현실을 인식하는 인식 체이자 매개체로서 미디어(media)의 위상을 상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현실 추수적인 작품을 양산하는데 그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신문연재 장편소설의 다작을 들 수 있다. 김이석의 단편과 황순원의 소설을 제외하고, 이 글의 논의대상이 되는 작품의 대다수가 신문연재소설의 형태로 쓰여진 것이다. 전전(戰前) 세대 작가의 다수가 한국전쟁이후 중앙 일간지 및 지방 일간지를 대상으로 신문연재소설을 쓴다. 일제 식민치하 혹은 해방전후에 비해, 양적으로 훨씬 많아진 언론사는 상업적 효과를 배가시키는데 신문연재 소설을 동원한다. 이에, 한국전쟁이후 적지않은 작가들이 언론사의 상업적 전략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우선, 전전(戰前) 세대의 많은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총망라하여 다루지 못했다. 전전(戰前) 세대 여성 작가의 전후 인식, 전전(戰前) 세대 월북(越北)·재북(在北) 작가들의 전후 인식, 1950년대 비평사의 맥락 등에 대해 깊이있게 다루지 못했다. 특히, 월북 작가들의 전후(戰後) 인식은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남한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이 선택한 ‘공산주의’ 양 체제 모두 모순과 상처를 가졌지만 ‘동일한 민족 정체성’을 존속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단일 민족주의 담론’을 계승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까닭에, 전전(戰前) 세대 작가들이 현실에서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의의를 깊이있게 천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전(戰前) 세대 월북 작가들이 선택한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차후의 과제로 삼아, 전전(戰前) 세대 작가의 1950년대 소설에 관한 논의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 참고 문헌 >

1. 1차 자료

김말봉, 『별들의 고향』, 정음사, 단기 4286년(1953) 참조.

_____, 「새를 보라」(『대구매일』, 1954. 2. 1-6. 17)

_____, 「푸른 날개」(『조선일보』, 1954. 3. 26-9. 13)

- 김이석, 「학춤」(『신태양』, 1956)
_____, 「빼꾸기」(『문학예술』, 1957. 5)
안수길, 『통로』(『현대문학』, 1968. 11-1969. 11), 정음사, 1985.
염상섭, 「취우」, 『염상섭전집』7(『조선일보』, 1952. 7. 18-1953. 2. 20), 민음사, 1987.
정비석, 『고원·애정무한·기타』, 민중서관, 1965.
_____, 『人間失格』, 정음사, 1962.
_____, 『에덴동산의 길은 아직도 멀다』(『조선일보』, 1961. 1. 25-12. 11), 회현사, 1978, 279면.
_____, 『자유부인』(『서울신문』, 1954. 1. 7-8. 6), 고려원, 1985.
최독건, 「애정능선」(『영남일보』, 1956. 4. 16-1956. 10. 10)
최태응, 「행복은 슬픔인가」(『영남일보』, 1954. 10. 24-1955. 2. 24)
황순원, 「카인의 後裔」, 『황순원전집』5(『문예』, 1953. 9-1954. 3), 문학과지성사, 1990.
_____, 『인간접목/나무들 비탈에 서다』, 문학과지성사, 1995.
_____, 『신들의 주사위』, 문학과지성사, 1989. 외 다수.

2. 논문 및 저서

- 금장태, 『유학의 사상과 의례』, 예문서원, 2000.
김동윤 「1950년대 소설의 이데올로기 수용양상-구세대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50년대편』2권, 인물과사상사, 2004.
강준만·김환표, 『희생양과 죄의식-대한민국 반공의 역사』, 개마고원, 2004, 150면에서 재인용.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945-1990』, 민음사, 1994.
김병익, 「분단문학의 문학적 전개」, 『문학과지성』, 1979, 봄호, 84-99면.
김영택, 「전쟁체험의 소설화에 대한 일 고찰-전전세대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 『선청어문』23,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1995. 4.
- 김윤식, 「6·25 소설의 원점」, 『우리 소설을 위한 변명』, 고려원, 1991, 282-285면.
- _____, 「6·25전쟁문학-세대론의 시작」, 『1950년대문학연구』, 예하, 1991, 11-39면.
- 박명립, 「종전과 “1953년 체제”」,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2004, 235-274면.
- 송기섭, 「근대소설과 유교적 인간」, 『국어국문학』127, 2000, 359면.
- 송하춘, 「1950년대 한국 소설의 형성」,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1994, 13-30면.
- 신영덕, 『한국전쟁기 종군작가 연구』, 국학자료원, 1998.
- 유임하, 『분단현실과 서사적 상상력-한국현대소설의 분단인식연구』, 태학사, 1998.
- 유재일, 「한국전쟁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착」, 『역사비평』, 1992, 봄호, 역사비평사, 139-150면.
- 이동하, 「분단소설의 세단계」, 『분단문학비평』, 청하, 1987.
- 이임하, 『계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한국 근현대사 속의 여성 이야기』, 서해문집, 2004.
- 이봉일, 『1950년대 분단소설 연구』, 월인, 2001.
- 임현영, 『문학과 이데올로기』, 실천문학사, 1988.
- 한명환외 3인, 「해방 이후 대구·경북 지역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발굴 조사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21,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4, 345-370.
- 한수영, 『한국현대 비평의 이념과 성격』, 국학자료원, 2000.
- 이효덕·박성관 옮김,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 加地伸行·김태준 역, 『유교란 무엇인가』, 지영사, 1996.
- 의 다수.

[Abstract]

Post-war perception on the novels of the 1950's Pre-war Generation

Ahn, Mi-Young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post-war perception on the novels of the pre-war generation. The pre-war generation denotes writers who started their literary career in the 1920~1930s and published works steadily until the 1950s. Although they published works during the 1930s, they did more after the 1950s. Nevertheless, their works were neither known well nor appreciated highly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of the 1950s. This research purposed to analyze the works of the pre-war generation published during the 1950s and to examine the meanings of the novels of the pre-war generation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of the 1950s.

There are two remarkable meanings of the novels of the pre-war generation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of the 1950s. First, they accepted dominant ideologies in these days and, consequently, deprived readers of the depth of political thought. In his '*Look At The Bird*,' Kim Mal-bong describes a war widow whose husband went to North Korea as a criminal who has an evil influence on the society. She is actively involved in anti-Communism in her post-war novels. Anti-Communism ideology appears not only in popular novels but also love stories. In his '*Unlimited Love*,' Jeong Bi-seok described anti-Communism as an essence for 'the freedom of love.' The pre-war generation hinders readers from having in-depth speculation on 'freedom.'

On the other hand, pre-war generation writers lead post-war restoration from impoverished realities by suggesting traditional order as the moral of their novels. Kim Yi-seok brings 'good persons' into relief in his short stories and realizes Confucian humanism. Such a sentiment arouses nostalgia for their pre-war hometown in war refugees who experienced separation from families and the loss of their hometown. Since he introduced 'the Myth of Cain and Abel' in his '*Cain's Descendants*,' Hwang Sun-won looks for an active savior who can restore the post-war life. Wounded soldiers in '*Human Grafting*' and students soldiers appearing in '*Trees Standing On The Slope*' make efforts to save not only themselves but also war refugees.

This research did not deal with female pre-war generation writers' post-war perception, the post-war perception of pre-war generation writers who went to North Korea and comparison with post-war generation writers. In-depth discussion on the history of literature of the 1950s must be preceded by discussion on the post-war perception of pre-war generation writers who went to North Korea. This will be a theme of future research.

key word : the pre-war generation, Anti-Communism ideology, the freedom of love, traditional order, Confucian humanism, active savior